

예배순서

*경배와 찬양	입례 / 갈급한 내 맘 / 예수 좋은 내 친구 주께서 다스리네 / 하나님의 열심	다같이
대표기도		정재인
*성경봉독	시 23:1~6	박샤론
말씀	목자와의 동행	김상범 목사
응답찬양	시편 23편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목사
광고 및 환영		김태동
*파송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다같이
*축도		김상범 목사

헌금안내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응답찬양

시편 23편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라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하시고 인도하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 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것이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 하지 않을것은	내가 여호와와 집에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목자와의 동행 (시 23:1~6)

1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 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shalom! 다윗이 쓴 시편 23편은 목가적 아름다움과 함께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여 마음을 터치하는 깊은 메시지가 있기에 지금껏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시입니다. 목동이었던 다윗만큼 목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양들이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고백한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에는 일반인은 알 수 없는 숨겨진 의미들이 축약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는 목동의 경험과 생생한 삶의 체험을 담아 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그것은 신뢰와 인격적 사랑입니다. 그는 모두에게 선한 목자가 아니라 내게 선한 목자이신 그 분을 찬양합니다. 그런 목자를 다윗은 온 마음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2-3절에서 그는 목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양들을 먹이는 것 (feeding)으로 정의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먹고 마시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한 선한 목자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feeding을 넘어 양들의 행복과 감정적 만족까지 살피는 세밀한 목자입니다. 푸른 초장과 쉼만한 물가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다윗은 이런 선한 목자가 자기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고백하는데, 이는 원어적으로 볼 때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험한 세상에서 팍팍해진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깊은 평강(Shalom)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목자와 양의 깊은 신뢰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신뢰할 때 목자의 품에 안겨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의의 길, 즉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실 만한 인생 길로 이끄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양들이 의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3절) 양들이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잘 따르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옫의 순전함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사탄은 이를 시기하여 모략을 짜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는 시의 배경이 확 바뀝니다. 목가적 분위기는 사라지고 사망의 골짜기가 주배경이 됩니다. 사실 베들레헴은 험한 광야 지대입니다. 아름답기만 한 목초지가 아닙니다. 베들레헴 목동 출신 다윗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선한 목자를 만나도 사망의 음침한 계곡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철저하게 현실에 입각한 영성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도 여전히 삶의 어려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사망의 골짜기를 없애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골짜기가 있지만 그 곳을 우리와 동행하시고, 안위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다윗은 평생을 통해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손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으며, 그에게는 우리에게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부으실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끝까지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양들을 원수가 보는 앞에서 높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결국 목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약속은 원수 앞에서 높임 받는 것, 즉 '승리'입니다. 푸른 초장과 쉼만한 물가만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는 한적한 목가적 노래가 아니라 거친 풍랑을 뚫고 승리를 쟁취하는 전장의 개선가인 것입니다.

그 승리를 경험한 다윗은 마지막 절에서 다시금 주의 임재와 평강이 있는 관계 가운데로 돌아갑니다. 그에게는 승리보다도 평강이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그가 원했던 궁극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영원히 그 곳에 머물렀다고 선포합니다. 그는 목자와의 동행 자체가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말씀산책

우리 기독교인은 이 시를 읽으며 한 분이 떠오릅니다. 이 시의 목자와 같은 삶을 실제 살아 내신 한 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은 다윗이 목동생활을 했던 바로 그 곳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의 탄생을 처음 알게 된 자들도 다윗의 후배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는 친히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는 양들에게 자신과의 동행과 연합을 진정으로 바라셨는데 이를 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표현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 분은 친히 양들의 길이 되어 주셨고, 양들에게 궁극적으로 약속해 주신 것은 바로 '평안과 승리'였습니다. 천 년 전 다윗이 고백한 바로 그 목자이십니다. 그 분은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 삶도 예수님과 평생을 동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복된 삶, 승리의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상 질문

- 만약 이 시를 내가 썼다면 "여호와와는 나의 OOO이다"를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표현하셨는지 서로 나눠주세요.
- "진정으로 목자를 신뢰한다면 두렵지 않다"는 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 목자가 궁극적으로 약속하시는 것이 '편안'이 아니라 '평안'과 '승리'라는 점이 내 삶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 나는 목자가 주는 선물에 더 관심이 있는 양인가요, 목자와 함께 하는 것 자체에 더 관심이 있는 양인가요?

성경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교회 웹사이트 방문부 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파송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안내 및 협조부탁

청년부 예배는 오후 1시 찬양이 시작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가급적 5분전까지 참석하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과 조금 늦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뒷좌석 가운데쪽은 가급적 자리를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팀원 모집

라이트팀 - 청년부 예배 전/후 교회 라이드를 도와주실분들 (문의: 김윤희)
찬양팀 - 여 싱어, 건반, 일렉 기타, 드럼 (문의: 전하영)
예배팀 - 음향/자막 팀원 모집 (문의: 박규상)
미디어팀 - 주보 편집에 관심 있으신 분 (문의: 안혜성)

새가족 교육 수료

- 김제원, 김진구, 박기완, 박정빈, 장한승, 최재호, 허지훈

2023년 AKPC 장학금 수여식

- 오늘 (11월 26일) 1부 예배중
- 수여자 : 김민신, 이성현, 이예진, 조약돌, 조혜연, 허소정, Ellen Baik, David Kim

Arise 금요찬양기도회

- 12월 1일(금) 오후 8시, 본당
- 토요 무릎기도회는 쉽니다.

12월 아웃리치 및 연말 불우이웃 돕기

- 12/2(토) UT 캠퍼스 아웃리치 진행 (담당: 정재인)
- 12/3(주일) 불우이웃 돕기 Canned Food Distribution (담당: 하지수 자매, 많은 목장의 참여를 권면합니다)
- 세부(필리핀) 성폭행 피해여성 숙소용 bed 지원 fund raising (Darrell & Shira Woods 선교사)

2023 AKPC 크리스마스 뱅킷

- 12/10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모든 청년들을 초청합니다.
- 성탄 축하무대 sign-up 받습니다. (예, 노래, 악기, 춤, 시, 수화, Skit 등)

2023 성탄절 축하예배 안내

- 12/24(주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청년부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 12/25(월) 오전 10시에 성탄절 축하예배를 온가족 연합예배로 본당에서 드립니다.

주일 3부 예배 신설 및 예배시간 변경

- 2024년 3월 3일부터 주일 3부 예배가 신설되면서 예배시간이 변경됩니다.
- 1부 : 8시, 2부:10시, 3부:12시
- EM : 10시, 다음세대 : 10시, 청년부 : 오후 2시

생명의 삶 12월 호

- 권당 5불



찬양팀 신청 QR



예배팀 신청 QR



뱅킷 Sign-up



축하무대 Sign-up

예배 / 모임

주일청년예배 주일 1pm
금요기도모임 금 7pm
청년목장 주중 또는 예배후
Good Morning 말씀산책 월-금 6:30am
토요무릎기도회 토 6:30am

AKPC PSALM_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에스겔 37:5

THUS SAITH THE LORD JEHOVAH UNTO THESE BONES: BEHOLD, I WILL CAUSE BREATH TO ENTER INTO YOU, AND YE SHALL LIVE.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Table with 3 columns: Role (담당목사, 지도장로), Name (김상범, 김종환), Email (cptksb3@gmail.com, jybella@utexas.edu)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Table with 3 columns: Role (새가족팀장, 라이드팀장), Name (박샤론, 김윤희), Email (Sp9316@gmail.com, michaelssdogani@gmail.com)

양육과정안내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78753 TEL_512 454 1727 FAX_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FACEBOOK | PSALM AKPC INSTAGRAM | @PSALM_AKPC

